

한양대학교 공자아카데미

◆사진(5장이상 첨부하여,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)



2주동안 지냈던 길림대학 우의회관이다. 한국인 유학생들도 많고, 다른 외국인들도 많아서 지내면서 재미있었으며 안에 시설들이 편리하게 되어있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.



중국 도착해서 처음 먹었던 중국식 음식이었던 것 같다. 입맛에도 잘 맞았고 식당에서 항상 양은 부족하지 않게 주셔서 2주 동안 먹는 걱정은 하지 않았던 것 같다.



2주 동안 지냈던 기숙사 방이다. 한국에서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깨끗했고, 난방이 잘 되어서 반팔을 입고 잘 정도로 따뜻했다. 쓰레기통도 매일 오전 아주머니들께서 비워주셔서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.



중국어 수업을 들었던 교실이다. 교실이 우의회관 안에 있어서 추운 날씨에 이동하기 편했고, 한 반에 학생이 많지 않아서 수업을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다.



한양대학교 공자아카데미



우의회관 근처 상가이다. 꽤 늦게까지 하는 마트도 있고 카페, 음식점, 술집 등 많은 편의시설이 있어서 아주 좋았다.



하얼빈 빙등제에서 신나게 놀았지만 넓은 빙등제를 충분히 다 즐기기에 시간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. 그래도 춥지만 재미있었던 일정이었다.



731부대 유적지가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상깊었던 수업 외 활동이었다. 한국어 오디오를 다 빌려주셔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관람하고 나니 정말 의미있는 일정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.

